

이재명 “준비된 대통령” vs 김문수 “민생·경제 대통령”

이, 2만명 운집 광화문 출정식
 “신문명 표준으로 나아가야”

김, 가락시장서 첫 스타트
 이준석 ‘젊은 보수’로 차별화

6월 3일 치러지는 21대 대선 공식선거운동 첫날인 12일 주요 정당 후보들이 미래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적임자임을 자임하며 22일간의 레이스에 돌입했다. ▶ 관련기사 3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를 비롯한 7명의 후보는 이날부터 선거 전날인 6월 2일까지 전국을 돌며 선거운동에 나섰다.

정치권은 현재 ‘1강 1중 1약’의 판세가 형성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절대 1강’인 이재명 후보와 지역(영남) 기반이 확고한 김문수 후보가 1중, 한 자릿수 지지율을 보이는 이준석 후보가 1약으로 분류된다.

최근 발표된 다수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다른 후보들을 앞서고 있고, 전통적 보수층에서 지지 기반을 가진 김문수 후보가 역전을 노리고 있다. ‘중도 보수’를 표방하는 이준석 후보는 한 자릿수 지지율에 머물러 있으나 최근 국민의힘 후보 교체 내용 사태를 계기로 존재감을 키우는 모습이다.

대선 관전포인트는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 50%를 넘길지와 함께 범보수권의 빅텐트(김문수-이준석) 여부다. 김문수 후보는 빅텐트를 주장하고 있지만, 이준석 후보는 ‘반탄(탄핵 반대)’을 외친 김 후보와 연대할 가능성이 0%라고 주장하고 있다.

역대 대선의 최고 득표율은 박근혜 전 대통령(2012년)의 51.6%이고, 민주당 후보로 한정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2002년)의 48.9%가 최고였다. 이재명 후보가 득표율 50%를 넘겨 당선되면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된다.

‘절대 1강’인 이재명 후보는 이날 서울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지지자 2만명이 운집한 가운데 열린 출정식에서 “준비된 대통령”을 강조하며 선거 운동의 서막을 알렸다.

이 후보는 출정식 첫 유세에서 “이번 대선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대결이 아닌, 내란으로 나라를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현정질서·민생을 파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2일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선거대책위원회가 5·18 민주광장에서 선대위 출정식을 열고 압도적인 지지로 이재명 후보 승리를 호소하고 있다. 김태규 기자

괴한 거대 기득권과의 일전”이라며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후보는 “내란수괴를 재판에 넘기고 대통령직도 박탈했지만, 헌법까지 무시하는 내란 잔당의 2차·3차 내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그러나 저들의 반란은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특히 “더는 과거에 사로잡히거나 이념, 사상, 진영에 얽매어 분열할 여유가 없다”며 “이제부터는 진보의 문제도 보수의 문제도 없다. 오로지 대한민국의 문제만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인수위 없이 정부가 출범하는 만큼 당선자는 숨들릴 틈도 없이 난파선의 키를 잡고 위기의 거대한 삼각파도를 넘어야 한다. 바로 투입될 유능한 선장, 대한민국의 살림을 책임질 준비된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에게 일할 기회를 주지만 단 한 사람의 책임자가 얼마나 세상을 크게 바꾸는지 증명하겠다. 저를 국민의 행복을 증명할 유용한 도구, 충직한 일꾼으로 선택해달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김문수 후보는 공식 선거 운동 첫 행보를 ‘민생’으로 시작하면서 민생·경제에 집중하는 ‘시장 대통령’이 되겠다고 호소했다.

김 후보는 이날 새벽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에서 하루를 시작해 저녁 대구 서문시장에서 일정을 마무리했다. 첫 일정으로 시장에서 상인과 시민을 만나 장바구니 물가를 체험함으로써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후보로서 이미지를 부각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는 시장 방문을 마치고 취재진에게 “경제와 민생이 얼마나 어려운지 삶이 얼마나 힘들지 느낀다”며 “민생 대통령, 경제 대통령이 되어야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날부터 이틀간 서울-대전-대구-울산-부산을 훑는 소위 ‘경부선 유세’를 펼친다. 후보 등록 직전 ‘단일화 논란’으로 내홍을 겪은 국민의힘은 실망한 ‘집토끼’와 부동층인 ‘산토끼’를 잡기 위해 부심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마지막 반전 카드인 ‘반영 빅텐트’를 통해 막판 대역전을 노리고 있다.

이준석 후보는 첫날부터 민주당 강세 지역인 호남을 방문해 청년·미래 세대 정책에 집중하는 등 ‘젊은 보수’로 차별화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 후보는 이날 ‘0시’ 일정으로 여수 국가산업단지를 찾았다. 이 후보는 “이공계 출신 이면서 글로벌 마인드를 갖추고 있다고 자부하는 제 의지를 드러내기 위한 최적의 장소”라고 설명했다. 서울=김현수 기자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첫 법원 공개출석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일 처음으로 법원 지상으로 걸어출석했으나 포토라인에 멈춰 서지 않은 채 말없이 법정으로 직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55분께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 사건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2층 서관 입구에 도착했다.

검은색 승합차에서 내린 윤 전 대통령은 굳은 표정으로 정면만 바라본 채 법정으로 직행했다. 그는 앞선 재판 때와 마찬가지로 짙은 남색 양복에 붉은 넥타이 차림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사과할 생각 있느냐’, ‘군부정권 이후 계엄 선포한 헌정사상 첫 대통령인데 스스로 자유민주주의 자라 생각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과 관련해 국민에게 할 말이 있느냐는 물음에도 대답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갔다.

주변에 있던 일부 지지자는 윤 전 대통령의 출석을 전후해 “윤석열! 대통령!”을 연호했다.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이 일반에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두 차례 공판 때는 대통령경호처 요청에 따른 법원 허가에 따라 지하 주차장을 통해 비공개로 출석했다. 헌법 재판소 탄핵심판 변론 때도 여러 차례 직접 출석했으나 모두 지하 주차장을 이용해 비공개로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세 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검찰이 지난 1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관리행사 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한 뒤 처음 열리는 공판이다. 연합뉴스

내일이 밝는 기회도시 광주

오월 광주, 민주주의 대축제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제45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

2025년 광주의 오월은 어느 해보다 특별합니다.

5·18 정신과 함께 걷고 타고 먹고 쉬면서 광주를 새롭게 경험하도록 준비했습니다.

지하철·버스 무료 (17~18일)	오월 텐트촌 운영 (17일 밤)
소년의 길 투어	주먹밥·빵 나눔

제15회 세계인권도시포럼
5.15.(목) 14:00
김대중컨벤션센터

민주평화대행진
5.17.(토) 16:00
광주고등학교

5·18전야제
5.17.(토) 18:00
금남로 일대

5·18기념식
5.18.(일) 10:00
국립5·18민주묘지

광주인권상 시상식
5.18.(일) 19:00
5·18민주광장

5·18민주묘지 추모탑

두 손으로 '난형환조(희생당하신 분들의 넋을 위로하고 부활을 상징)'를 감싸고 있는 형상을 표현